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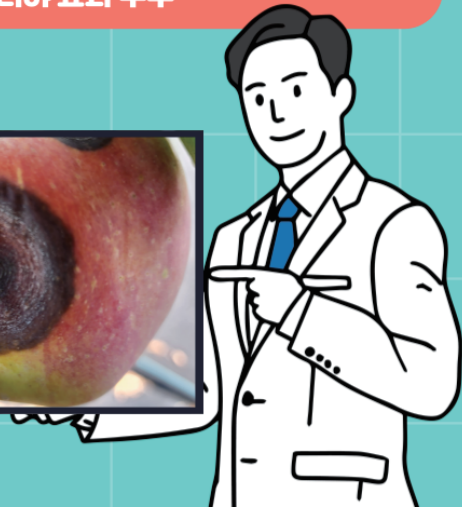
발생 전 초기 방제 필요



공주시농업기술센터


노지 과일 피해 주는 탄저병, 미리 관리하세요


- 과일나무, 생물계절 변동에 맞춰 병 발생 전 초기 방제 필요
- 계통 다른 약제, 교차로 뿌려야 효과 우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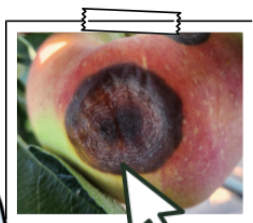


탄저병?

#빛물 #바람을 타고 발생
#사과,복숭아에 주로 발생 #상품성 하락

 탄저병은 빛물이나 바람을 타고 번지고,
사과, 복숭아 등 과일에 주로 발생

 탄저병에 걸린 과일 표면에는 탄저 반점이 생겨
상품성이 크게 떨어짐



사과 탄저병



복숭아 탄저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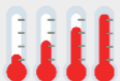
초기 방제가 중요한 이유는?

올해 기온

6.2°C

평년(4.2°C)보다

2.0°C **높아**



올해 강수량

279.2mm

평년(187.7mm)

보다 91.5mm

많고



올해 햇빛양

599.9시간

평년(691.3시간)

보다 23.2%

적음



올해 1월부터 4월 20일까지 (전북특별자치도 전주 기준)

기온 상승으로 과일나무 꽃 피는 시기가

빨라짐에 따라 생물계절의 변화가 생겨

병원균 침입에 영향을 줌

특히 비가 많이 내리고 햇빛양이 적었던 터라

초기 방제시기를 앞당겨야

약제 살포 **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.**



탄저병 방제방법?

농가에서는

- ✓ 과수원 내 외부의 병든 잔재물 철저히 제거
- ✓ 가지치기할 때 감염된 가지는 제거하고 주변정리
- ✓ 병 발생 전이라도 예방 차원의 방제약 살포
- ✓ 약제는 열매가 달린 후 비가 오기 전 살포
- ✓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계통이 다른 약제 교차 사용
- ✓ 과수원 주변에 병원균이 머물 수 있는 아카시나무, 호두나무 등 기주식물* 제거

*기주식물-병원체가 감염 또는 기생하며 잠복할 수 있는 식물

